

2013년 중국 노동시장 현황 분석 및 2014년 전망

황경진 (중국 인민대학교 경제학 박사)

■ 머리말

시진핑(习近平), 리커창(李克强) 지도부 출범 첫해인 2013년 중국 정부는 안정 속의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았다. 이러한 의지를 반영하듯 지난 2013년 11월에 있었던 중국 공회 16차 대회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중국 노동시장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경제환경의 변화, 즉 대외적으로는 2013년 세계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중국 경제성장세의 둔화와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및 구조적 모순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세계경제가 당초 기대와 달리 2%대의 낮은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이미 세계경제체제로 편입되어 있는 중국의 대외무역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혀 중국의 수출지향형 기업들은 경영난을 겪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3년 중국의 노동시장은 고용흡수력이 위축되었다. 다음으로 2013년 중국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수급불균형과 구조적 모순에 봉착해 있었다. 먼저, 노동연령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취업연령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여전히 일자리가 부족하다. 여기에다 중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로 경험이 부족한 신규 대졸자의 구직난이 격화되었고, 숙련된 기술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중고급 기술인력 및 작업일선에서 일하는 단순생산 노동자의 구인난이 가중되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이 글에서는 중국사회과학원이 매년 발간하는 『2014년 중국사회 형세분석 및 예측(2014年

中国社会形势分析与预测, 이하, '사회청서')』,¹⁾ 『2014년 중국경제 형세분석 및 예측(2014年中国经济形势分析与预测, 이하, '경제청서')』²⁾ 및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노동시장 관련 통계자료 등을 중심으로 2013년 중국 노동시장의 전반적 상황을 살펴보고 아울러 2014년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2013년 중국 노동시장의 특징

2013년 중국 노동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인구구성 중 연소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반면,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했다는 점이다. 1982년에서 2011년까지 30년간 0세에서 14세까지의 인구가 중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6%에서 16.6%로 감소했다. 반면 2006년에서 2011년까지 중국 65세 이상의 인구는 7.9%에서 9.1%로 증가했다. 또한 [그림 1]과 같이 출생률이 낮게 유지되고 인구고령화의 추세가 급진전됨에 따라 15세에서 59세까지의 노동연령인구는 2011년 최고치에 도달했고, 그 이후 절대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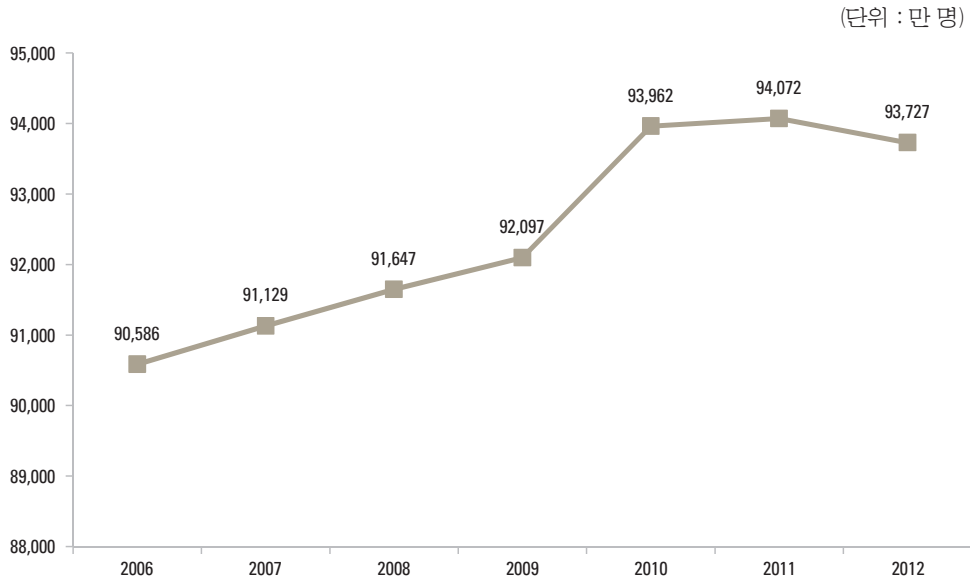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노동연령인구가 마이너스 증가의 역사적인 변곡점으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노동참여율도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5년 76.0%에서 2011년 70.8%까지 감소했다.

다음으로 2000년 이후 중국 동부연해지역의 토지사용, 노동력, 전기, 산업용수 등 생산요소의 가격이 급등하고 이 지역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고용 면에서 취업구조를 변화시켰다. 먼저, 수출지향형 경제지역으로 대표되던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환발해 등 지역의 일부 노동집약형 기업이 중서부 지역 및 경제가 덜 발달된 동부의 다른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면서 [그림 2]에서 보듯이 이들 지역의 노동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 李培林·陈光金·张翼(2013), 『2014年中国社会形势分析与预测』, 社会科学文献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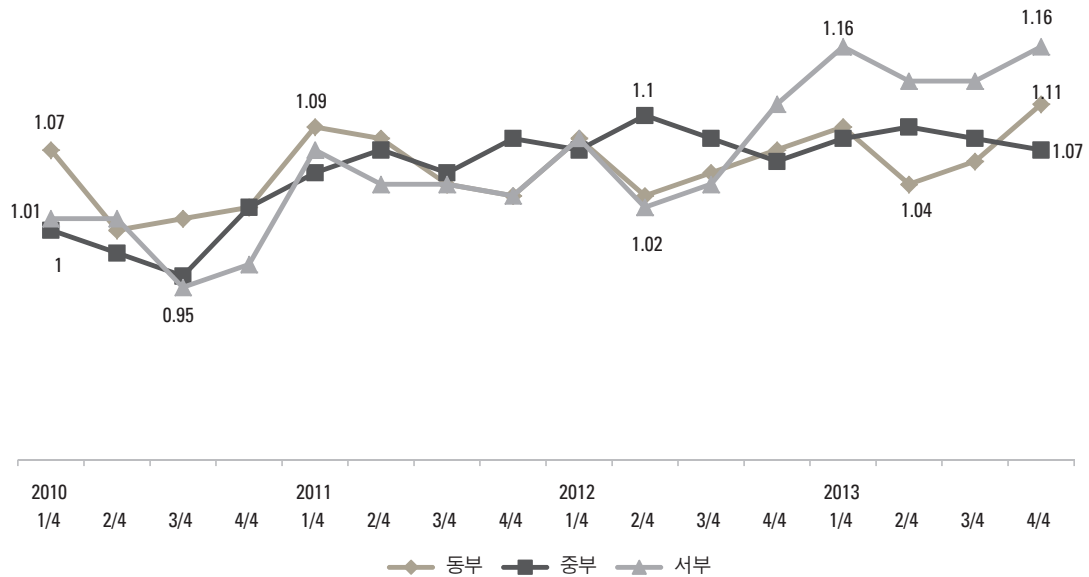
2) 李扬(2013), 『2014年中国经济形势分析与预测』, 社会科学文献出版社.

[그림 1] 15~59세 노동연령인구의 변화 추이(2006~2012년)



자료 : 중국통계연감(2013).

[그림 2] 지역별 구인배율(2010~2013년)



자료 : 중국인력자원시장 정보 모니터링 센터, 『중국 일부 도시지역 인력자원시장 수급상황 분석』
http://www.chinajob.gov.cn/DataAnalysis/node_1522.htm.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산업별 취업구조를 변화시켰다. 최근 11년간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표 1 참조) 1차 산업의 생산액 및 고용비중은 감소했는데, 1차 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의 13.7%에서 2012년 10.1%로 감소했고, 고용비중은 2002년의 50.0%에서 2012년 33.6%까지 감소했다. 2차 산업의 생산액 비중은 2002년 이후 증가하다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는 반면, 고용비중은 2002년 21.4%에서 2012년 30.3%까지 증가했다. 3차산업의 생산액 비중은 2차 산업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41.5%에서 2004년 40.4%까지 감소했다가 그 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2년 44.6%까지 증가했다. 생산액 비중의 변화와 달리 3차 산업의 고용비중은 해마다 늘어났는데, 2002년은 28.6%에 불과했지만, 2012년 36.1%로 1차 산업의 고용비중보다 커 고용자 수가 가장 많은 산업이 되었다.

지난 11년간의 발전 양상을 보면, 현재 중국의 산업구조는 '2차-3차-1차' 산업의 구조이고, 2차, 3차 산업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취업구조는 지난 11년간 '1차-3차-2차'의 구조에서 현재 '3차-1차-2차'의 구조로 변화했고, 3차 산업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산업별 구조와 취업구조

(단위 : %)

	GDP 구성			고용비중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2002	13.7	44.8	41.5	50.0	21.4	28.6
2003	12.8	46.0	41.2	49.1	21.6	29.3
2004	13.4	46.2	40.4	46.9	22.5	30.6
2005	12.1	47.4	40.5	44.8	23.8	31.4
2006	11.1	47.9	40.9	42.6	25.2	32.2
2007	10.8	47.3	41.9	40.8	26.8	32.4
2008	10.7	47.4	41.8	39.6	27.2	33.2
2009	10.3	46.2	43.4	38.1	27.8	34.1
2010	10.1	46.7	43.2	36.7	28.7	34.6
2011	10.0	46.6	43.4	34.8	29.5	35.7
2012	10.1	45.3	44.6	33.6	30.3	36.1

자료 : 『중국통계연감(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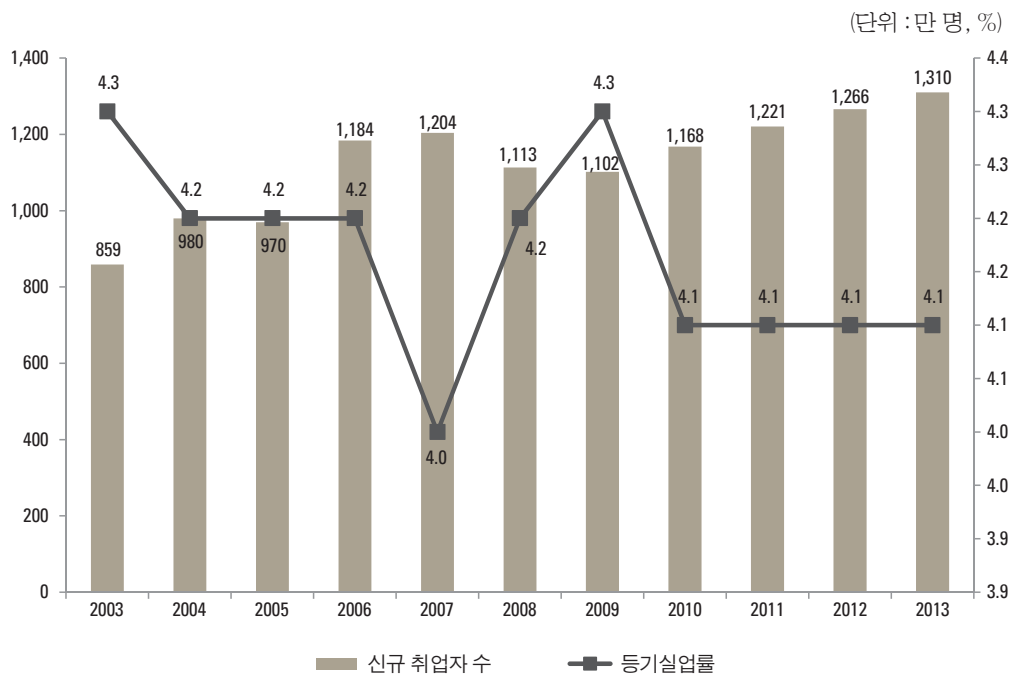
■ 2013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기본현황

경제성장세 둔화에도 신규취업자 수 증가, 도시지역 등기실업률 4.1%

중국 정부는 2013년 한 해 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자를 위한 소액담보대출제공, 미취업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실직자, 농민공, 청년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지원과 취업서비스 제공 등 각종 정책들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이 하나둘씩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어 도시지역 신규 취업자 수가 2012년보다 증가하였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2013년 4분기 언론브리핑(人カ資源和社会保障部2013年第四季度新闻发布会)’에서 리충(李忠) 대변인은 2013년 한 해 동안 도시지역 신규 취업자 수는 1,310만

[그림 3] 중국 도시지역 신규 취업자 수 및 등기실업률 추이



주 : 2013년 통계는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2013년도 4분기 기자회견.

자료 : 중국통계국, 연도별 인력자원(노동)과 사회보장 사업발전 통계공보.

명으로 전년도인 2012년도보다 44만 명이 늘어났고 한 해 목표치였던 900만 명도 크게 초과했으며, 2013년도 실업률은 4.1% 수준을 유지했고, 4분기 말 현재登記실업률은 4.05%라고 밝혔다.³⁾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다소 감소, 구인배율 증가

중국 104개 도시의 공공취업 서비스기구에서 수집한 2013년 4분기 노동시장 수급정보(2013年第四季度部分城市公共就业服务机构市场供求状况分析)⁴⁾에 의하면, 고용단위가 공공취업서비스기구를 통해 채용한 인원은 512.5만 명이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구직자 수는 463.8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구인배율은 약 1.10으로 전분기 및 전년동기대비 각각 0.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동일한 조사대상 지역인 92개 도시와 비교하면, 2013년 4분기의 노동수요는 약 16만 명 줄어들어 3.3%포인트 감소했고, 노동공급은 약 28.9만 명 줄어들어 6.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2013년도 도시지역 노동시장 수급상황

(단위 : 명)

	조사규모(도시 수/총인구)	노동수요	노동공급	구인배율
1분기	101/1.8억	6,114,853	5,558,909	1.10
2분기	104/1.8억	6,091,702	5,695,791	1.07
3분기	100/1.78억	5,647,876	5,241,995	1.08
4분기	104/1.8억	5,125,347	4,638,376	1.10

자료 : 중국인력자원시장 정보 모니터링 센터, 『중국 일부 도시지역 인력자원시장 수급상황 분석』
(http://www.chinajob.gov.cn/DataAnalysis/node_1522.htm).

3) 자세한 내용은 http://www.china.com.cn/zhibo/2014-01/21/content_31260509.htm 참조
(최종검색일: 2014년 2월 2일).

4) 자세한 내용은 http://www.chinajob.gov.cn/DataAnalysis/content/2014-01/22/content_879534.htm 참조
(최종검색일: 2014년 2월 2일).

지역별로 보면, 동부지역의 노동수요와 공급은 각각 15.7만 명(5.9%), 22.4만 명(9.0%)이 줄었다. 반면 중부지역은 각각 2.3만 명(1.8%), 3.6만 명(2.9%)이 늘었지만, 서부지역은 각각 2.6만 명(3.0%), 10.1만 명(1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8% 이상의 노동수요가 2차, 3차 산업에 집중

2013년 4분기 노동수요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1차 산업은 1.6%, 2차 산업은 40.3%, 3차 산업은 58.1%로 2012년 같은 기간에 비해 2차 산업의 수요는 0.5%포인트 감소했지만, 3차 산업의 수요는 오히려 0.5%포인트 증가했다.

〈표 3〉 2013년 산업별 노동수요 현황

(단위 : 명, %)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1분기	108,589(1.8)	2,653,562(43.4)	3,352,702(54.8)
2분기	111,456(1.8)	2,548,689(41.8)	3,431,557(56.4)
3분기	101,814(1.9)	2,312,293(40.9)	3,233,769(57.3)
4분기	81,971(1.6)	2,064,712(40.3)	2,978,664(58.1)

자료 : 중국인력자원시장 정보 모니터링 센터, 『중국 일부 도시지역 인력자원시장 수급상황 분석』
(http://www.chinajob.gov.cn/DataAnalysis/node_1522.htm).

업종별로 살펴보면, 80.8%의 노동수요가 제조업(33.1%), 도소매업(15.6%), 숙박요식업(12.2%), 주민 및 기타서비스업(8.9%),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6.1%), 건축업(4.9%)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 중 제조업과 건축업의 노동수요는 2차 산업 전체 노동수요의 82.1%와 12.2%로 두 업종이 2차 산업 전체 노동수요의 94.3%를 차지하고 있다. 도소매업, 숙박요식업, 주민 및 기타서비스업,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노동수요는 각각 3차 산업 전체 노동수요의 26.8%, 21.0%, 15.3% 및 10.6%로 이들 4대 업종이 3차 산업 전체 노동수요의 7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제조업, 주민 및 기타서비스업,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노동수요는 각각 0.9, 1.2, 1.2%포인트 감소했지만, 도소매업, 숙박요식업의 노동수요는 각각 0.9, 0.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자기업의 노동수요 다소 증가

노동수요를 고용단위별로 살펴보면, 2013년 4분기 전체 노동수요의 96.7%를 기업에서 흡수하였고, 기관 및 사업단위와 기타 부분의 노동수요는 각각 0.6%,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표 4〉 2013년 소유제별 기업 노동수요 상황

(단위 : 명, %)

기업유형	1분기(수요/비중)	2분기(수요/비중)	3분기(수요/비중)	4분기(수요/비중)
기업	5,942,318(97.2)	5,914,558(97.1)	5,484,449(97.1)	4,955,373(96.7)
내자기업	4,508,564(75.9)	4,464,899(75.5)	4,020,182(73.3)	3,700,422(74.7)
국유기업	133,781(2.3)	125,614(2.1)	122,028(2.2)	107,727(2.2)
집체기업	83,447(1.4)	85,671(1.4)	76,432(1.4)	80,702(1.6)
주식합작기업	255,061(4.3)	187,170(3.2)	170,538(3.1)	164,096(3.3)
연합경영기업	90,774(1.5)	68,352(1.2)	85,957(1.6)	74,860(1.5)
유한책임회사	1,735,110(29.2)	1,774,253(30.0)	1,549,238(28.2)	1,361,071(27.5)
주식유한회사	656,050(11.0)	630,416(10.7)	585,220(10.7)	554,840(11.2)
사영기업	1,373,737(23.1)	1,445,193(24.4)	1,302,019(23.7)	1,212,752(24.5)
기타기업	180,604(3.0)	148,230(2.5)	128,750(2.3)	144,374(2.9)
홍콩·마카오· 대만투자기업	399,657(6.7)	380,491(6.4)	414,973(7.6)	349,777(7.1)
외상투자기업	493,473(8.3)	505,518(8.5)	528,239(9.6)	422,284(8.5)
개체경영(자영업)	540,624(9.1)	563,650(9.5)	521,055(9.5)	482,890(9.7)
사업단위	34,303(0.6)	23,353(0.4)	21,261(0.4)	21,109(0.4)
기관	9,344(0.2)	9,993(0.2)	10,417(0.2)	7,869(0.2)
기타	128,888(2.0)	143,798(2.3)	131,749(2.3)	140,996(2.7)
전 체	6,114,853(100.0)	6,091,702(100.0)	5,647,876(100.0)	5,125,347(100.0)

자료 : 중국인력자원시장 정보 모니터링 센터, 『중국 일부 도시지역 인력자원시장 수급상황 분석』
(http://www.chinajob.gov.cn/DataAnalysis/node_1522.htm).

났다. 기업의 노동수요 가운데 내자기업(内资企业)이 차지하는 비중은 74.7%이고, 이 중 유한 책임회사(27.5%), 사영기업(24.5%) 및 주식제 유한회사(11.2%)의 노동수요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유기업, 집체기업 등 공유제 기업의 노동수요는 각각 2.2%,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홍콩·마카오·대만투자기업의 노동수요는 7.1%, 외상투자기업은 8.5%, 자영업은 9.7%로 나타났다. 2012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내자기업의 노동수요는 2.5%포인트 증가했고, 홍콩·마카오·대만투자기업, 외상투자기업 및 자영업의 노동수요는 각각 0.8, 1.4, 0.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 중 실업자 비중은 증가하고, 농민공 비중은 감소

2013년 구직자 두 명 중 한 명은 실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4분기 구직자 가운데 실업자의 비중은 54.6%로 가장 높았는데, 이 중 신규증가 실업청년의 비중은 26.1%(당해연도 대

〈표 5〉 2013년 구직자별 노동공급 현황

(단위 : 명/%)

구직자	1분기 (구직자 수/비중)	2분기 (구직자 수/비중)	3분기 (구직자 수/비중)	4분기 (구직자 수/비중)
신규증가 실업청년	1,330,922(23.9)	1,381,060(24.2)	1,382,329(26.4)	1,208,997(26.1)
당해연도 전문대학 이상 졸업생	595,557(44.7)	638,509(46.2)	705,047(51.0)	574,476(47.5)
전직과정 실업자(마찰적 실업자)	874,193(15.7)	781,543(13.7)	745,589(14.2)	786,141(16.9)
기타 실업자	610,677(11.0)	766,728(13.5)	630,738(12.0)	538,181(11.6)
재직자	221,125(4.0)	271,355(4.8)	255,703(4.9)	235,430(5.1)
면직자(하강)	159,025(2.9)	142,266(2.5)	151,582(2.9)	110,349(2.4)
퇴직자	42,944(0.8)	44,585(0.8)	55,512(0.8)	39,624(0.9)
재학생	165,556(3.0)	170,846(3.0)	146,148(2.8)	123,798(2.7)
당해 시 농촌인원	1,076,776(19.4)	935,395(16.4)	808,199(15.4)	733,593(15.8)
타지 출신자	1,076,776(19.4)	1,202,013(21.1)	1,077,195(20.5)	862,263(18.6)
전 체	5,558,909(100.0)	5,695,791(100.0)	5,241,995(100.0)	4,638,376(100.0)

자료 : 중국인력자원시장 정보 모니터링 센터, 『중국 일부 도시지역 인력자원시장 수급상황 분석』
(http://www.chinajob.gov.cn/DataAnalysis/node_1522.htm).

졸자 비중은 47.5%), 마찰적 실업자는 16.9%, 기타 실업자는 11.6%로 나타났다. 농민공의 비중은 34.4%를 차지했는데, 이 중 당해 시 농촌출신자는 15.8%, 타지출신자는 18.6%로 나타났다.

2012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구직자 중 청년실업자의 비중은 1.8%포인트 증가했고(이 중 당해연도 대졸자 비중은 1.1%포인트 증가), 마찰적 실업자는 0.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공 중 당해시 농촌출신자는 1.5%포인트 감소했고, 타지 출신자는 2.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노동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기업 중 85.3%의 사업체가 구직자의 학력을 제한했다. 고졸학력에 대한 노동수요가 전체의 38.4%(이 중 직업학교, 기술학교, 중등전문학교는 60.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중졸 이하(19.1%), 전문대졸(17.5%), 대졸 이상(10.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직자의 학력은 고졸이 40.5%(이 중 직업학교, 기술학교, 중등전문학교는 59.7%), 중졸 이하 22.2%, 전문대졸 23.3%, 대졸 이상 14.0%로 나타났다.

구인배율은 중졸 이하가 1.11, 고졸 1.21, 전문대졸 0.99, 대졸 0.96 및 대학원 졸 1.31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2013년 중국 노동시장은 학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선노동자의 구인난과 학력수준이 비교적 높은 전문대, 대졸자의 구직난이 병존하는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2013년 교육수준별 구인배율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중졸 이하	1.09	1.10	1.00	1.11
고졸	1.15	1.17	1.21	1.21
직업·기술·중등전문학교	1.37	1.32	1.42	1.47
전문대졸	1.02	0.96	1.00	0.99
대졸	1.03	0.91	0.95	0.96
석사 이상	3.03	1.15	1.32	1.31

자료 : 중국인력자원시장 정보 모니터링 센터, 『중국 일부 도시지역 인력자원시장 수급상황 분석』
(http://www.chinajob.gov.cn/DataAnalysis/node_1522.htm).

노동시장 구조적 모순 여전

2013년 중국 경제가 오랫동안 유지해 오던 고도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기존의 양적 고성장 위주에서 질적 안정 성장을 목표로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하면서 노동수요와 공급도 이에 따른 변화가 필연적으로 도래했다. 즉 일부 신흥업종은 노동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고급인력의 노동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했고, 일부 전통 업종과 생산력이 과잉되었거나 생산력이 낙후된 업종에서는 대규모의 실업자가 나타났다. 2014년 1월 중국 인력자원시장 정보 모니터링 센터가 전국 104개 도시지역 공공취업서비스기구에서 수집한 시장수급 정보에 의하면, 중고급 기능인원 및 고급전문인원에 대한 노동수요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수요 측면에서 보면, 57.6%의 노동수요는 기술등급 또는 직무에 대한 명확한 요구가 있었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보면, 58.4%의 구직자는 일정한 기술 등급 또는 직무를 구비하고 있었다. 또한 모든 기술등급과 직무에 대한 일자리 결원과 구직자 수의 비율이 모두 1보다 커 노동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기사, 고급공정사, 고급기능인원의 구인배율은 각각 1.89, 1.79, 1.66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임금 증가, 지니계수 0.473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간 중국 도시지역 비공유제 기업의 재직 노동자 평균임금은 각각 37,147위안, 42,452위안, 47,593위안으로 인플레이션 요소를 제외한 실질 증가율은 각각 10.0%, 8.5%, 9.2%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각 연도의 GDP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⁵⁾

2013년 한 해 동안 중국의 31개 성급행정단위 가운데 모두 27개 지역에서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했다. 월 최저임금기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상하이(上海)로 1,620위안이고, 비전일제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北京), 신장(新疆)으로 15.2위안이며, 27개 지역의 평균 인상률은 17%다.

5) 2010년에서 2012년의 GDP의 성장률은 각각 9.9%, 8.8%, 7.3%이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3년 도시지역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26,955위안으로 전년도 대비 명목성장률 9.8%, 인플레이션 요소를 제거한 실질성장률은 7.0%로 주민소득의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성장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가통계국 마젠탕(马建堂) 국장은 중국 국내외 환경이 복잡하고, 도시지역 주민소득이 현재의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⁶⁾

한편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13년도 지니계수는 0.473이고, 농민공 수는 2억 6,894만 명으로 2012년보다 633만 명 증가했다. 이 중 해당 지역 농민공은 10,284만 명으로 2012년보다 3.6% 늘어났고, 외출농민공은 16,610만 명으로 2012년보다 1.7% 늘어났으며, 외출농민공의 월평균 소득은 2,609위안으로 2012년보다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⁷⁾

노동분쟁 전반적으로 안정

노동분쟁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으며, 노동분쟁의 증가율은 크지 않고, 관련자 수는 감소했다. 2013년 1월에서 9월까지 중국 각급 노동인사쟁의조정중재기구에 수리된 노동인사분쟁 사건 수는 49.4만 건으로 2012년 동기대비 3.2%포인트 증가했다. 노동인사분쟁 관련자 수는 65만 명으로 2012년 동기대비 1.6%포인트 감소했다. 중재결안률은 89.1%로 동기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예를 들어, 베이징 시의 경우, 2013년 상반기 수리된 노동인사분쟁 안전 수는 38,099건으로 이 중 인사분쟁은 76건, 집단적 노동분쟁은 1,819건, 관련자 수는 16,253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 노동인사분쟁의 특징을 살펴보면, 여전히 임금(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등 포함) 관련 분쟁, 노동계약 해제에 따른 경제보상금, 배상금과 관련된 분쟁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또한 비공유제 기업에서 노동분쟁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http://jingji.cntv.cn/2014/01/20/ARTI1390218772756136.shtml>(최종검색일: 2014년 2월 6일).

7) http://www.stats.gov.cn/tjsj/zxfb/201401/t20140120_502082.html(최종검색일: 2014년 2월 6일).

■ 맺음말: 2014년 중국 노동시장의 전망

2013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그동안 유지했던 8%대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7.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과거 중국은 GDP가 1% 성장할 때마다 100만 명의 고용효과가 있었는데, 현재는 서비스업의 발달로 GDP가 1% 성장할 때마다 130만~15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한다. 중국 경제성장이 견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 노동시장을 둘러싼 대내외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2013년 한 해 동안 중국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노동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한편으로는 일부 노동자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기업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리충 대변인은 이러한 현상에는 “첫째, 지역별로 보면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은 동부연해지구에서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둘째, 인원구성으로 보면 구인난 현상은 일선노동자와 중고급 기술인원에서 발생하고 있고, 구직난 현상은 신규 대졸자에서 발생하고 있다. 셋째, 업종과 기업에서 보면 이러한 현상은 주로 노동집약형 기업, 전통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넷째, 시간적으로 보면 노동력 부족현상은 기본적으로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존재하지만, 새해, 음력설 전후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격화된다”고 밝혔다.

중국 노동시장에서 이러한 상반된 현상의 출현은 중국 고용 측면의 구조적 모순이 반영된 것이다. 고용 측면에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은 장기적이면서도 중차대한 문제이고,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분석과 그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2014년 중국 노동시장이 직면한 문제이자 중국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KLI**